

보도시점

2025. 9. 23.(화)
15:40

배포

2025. 9. 23.(화)

아세안 경제장관회의의 계기 수출다변화 모색 및 디지털 등 신통상 규범 마련 기회로 활용

- 한-아세안, 아세안+3, EAS 경제장관회의 및 RCEP 장관회의 참석
- 미국, EU, 호주, 뉴질랜드, 아세안 주요국과 양자 면담 추진

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4일(수)~25일(목)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「아세안 경제장관회의」에 참석한다.

「아세안 경제장관회의」는 아세안 10개국 및 주요 협력국 경제·통상 장관들이 모여 오는 10월 26일(일)~27일(월) 「아세안 정상회의」에 앞서 경제분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, 우리나라는 한-아세안, 아세안+3(한·중·일), EAS* 경제장관회의 및 RCEP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디지털 전환, 공급망, 기후변화 등 역내 경제·통상 분야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한다.

* 동아시아정상회의(East Asia Summit) : '05년 아세안 10개국, 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미국, 러시아, 인도 정상 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(총 18개국)

또한,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에 방문한 미국, EU, 호주,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국과 양자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여 본부장은 “아세안 경제장관회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의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, 회의에 참석한 다양한 국가와 양자적으로도 FTA 체결 및 개선 등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”라며, “금번 회의를 우리 기업의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한국이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규범 마련을 주도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민문기 (044-203-5710)
		담당자	사무관	강홍구 (044-203-5712)

1. 회의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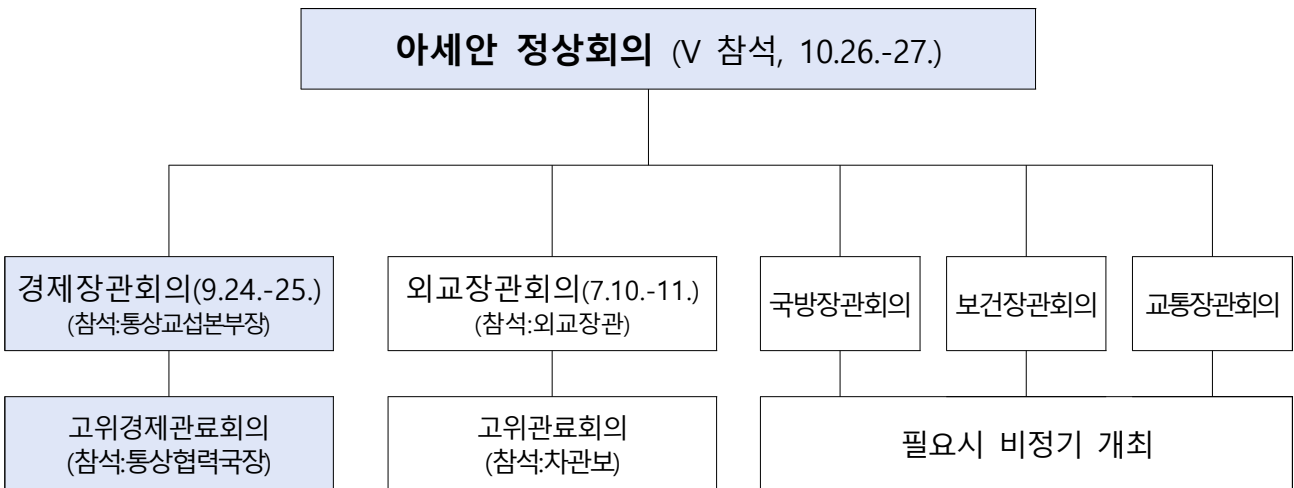
- 아세안의 대화상대국('91)*으로서 아세안이 주관하는 ①한-아세안, ②아세안+3, ③EAS 정상회의 및 경제장관회의에(AEM) 매년 참석

* EAS(8개국) + 영국, EU, 캐나다 등 총 11개국

구 분	참여국	주요 논의안건
한-ASEAN	<u>한국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한-아세안 FTA」 이행현황 • 한-아세안 경제협력 프로젝트 현황
ASEAN+3	<u>한국</u> , 중국, 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아시아 기업인 협의회 발표 • 아세안+3 경제협력 현황
EAS (ASEAN+8)	미국, 호주, 인도 뉴질랜드, 러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역내 및 세계 경제 동향 • 글로벌 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 공유

2. 회의 구성

- 아세안 고위관료회의(국장급)를 가장 먼저 개최하며, 이후 아세안 장관회의(장관급) 및 아세안 정상회의 순차 개최



* 이외에도 디지털장관회의, 재난관리장관회의, 문화예술장관회의, 초국가범죄장관회의 등 개최